

**사랑,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  
**Love, the Starting Point of Real Transformation**  
(디도서 Titus 2:11-14)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목사 안수 후보자들을 인터뷰 하면서,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놀랍게도 이 질문은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했던 분들조차 당황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너무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물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춤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장황하게 기독교 역사를, 또 어떤 분은 복잡한 교리를 늘어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덧붙여 묻지요. **‘형제님, 자매님께 구원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면 재차 묻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Have you been in peace last week within God’s grace? Today’s scripture clearly explains the purpose of the Lord’s coming to the world. When interviewing pastor candidates, I occasionally toss the following question. **‘What do you think is salvation?’** Surprisingly, this question throws into confusion even the students who have studied theology for a long time. Possibly this question is so intrinsic and fundamental that it freezes them unprepared. Some candidates narrate a long-winded history of Christianity, and some offer a complex Christian doctrine. Then I ask them additionally, “Brother and sister, what does salvation really mean to you?” If still confused, I ask them again, **‘Have you met the Lord personally?’**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과 충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쟁이 핍박 하다가, 자신이 더 지독한 예수쟁이가 됐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겸비한 바울, 어떻게 이렇게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잘난 척, 관찮은 척 했지만, 강렬한 빛에 육의 눈이 닫히고, 비로써 영의 눈이 열렸지요. 주님 사랑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빈 공간’을 발견한 것입니다.

Paul had a shocking encounter with the Lord at Damascus. After having persecuted Christians all his life, Paul became the most fervent Christian himself. How could Paul, who had the highest knowledge and intelligence at the time, surrender like that in one moment? Before that point, he had acted as though he was the best and the smartest, but bright light shut down his eyes and opened his spiritual eyes instead. He discovered ‘a spiritual empty’ which cannot be filled without the Lord’s love.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출세 해도 뭔지 모를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가득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Your grace is enough!’**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짜 주님을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People feel a certain spiritual thirst no matter how successful they are. Becoming a true Christian means that the Lord's love fills my spirit completely. 'Your grace is enough!' 'My cup overflows!' These are confessions that only people who have met the Lord individually and personally can offer.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은퇴하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사모님과 함께 선교디너에 참석하시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LA 에서 북가주까지 쉬지 않고 달려도, 꼬박 7 시간이 넘는 먼 거리입니다.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사모님께 이렇게 푸념하십니다. '내가 왜 밥 한끼 먹자고,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하고 있는거지?' 사모님 대답이 더 걸작이십니다. '글쎄요, 왜 가려고 하세요?' 사모님의 반문에 목사님은 별 생각없이 불쑥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게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 사랑에 빚진 게 너무나도 많아서 그렇지 ... 아마도 무의식 중에 하와이에서 목회 하실 때 생각을 떠올랐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교회에 출근하다시피 나와서 정성껏 교회 화단을 가꾸시는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목사님께서 하루는 '좀 쉬엄쉬엄 하세요. 뭐 그렇게 매일 나와서 수고하세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권사님은 정색을 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Once I heard a testimony by a retired pastor whom I respect. One day, he got into a car with his wife to attend a mission dinner. From LA to Northern California, it is a full seven-hour drive without stopping. On the highway, driving, he complained to his wife. 'Why do I drive such a long way, just to get a meal?' His wife responded with a witty comeback, 'Really, why are you going?' To her question, he answered without too much of a thought. 'Well, that's because I owe God so much.' Because he owed God so much for God's love ... Perhaps he was thinking about the time when he was a pastor in Hawaii. There was an exhorter who came to the church almost every day to tend the church garden. One day, the pastor said to her, 'Why don't you take it a little easy? Why do you have to work hard every day?' To his question, looking straight at him, she gave an answer he was not expecting, 'I owe God for so much love He has given me.'

은퇴하시고 나서야 '진짜 목사'가 되는 것 같으시대요. 다시 목회하시면,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만으로 교우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실 것 같대요. 지난 주에 잠시 조용한 묵상과 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너무 숨가쁘게 달려가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잠자리 들기 전 하루는 오늘 하루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는가에 달려 있고, 결국 짧은 인생도 한 평생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었는가로 기록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랑이 없는 변화는 그 자체가 공허하고, 오히려 위험한 것이 됩니다.

He said that he felt like becoming a 'real pastor' only after his retirement. If he is given another chance, he feels he can love church members more fully and warmly. Last week, I had a moment of quiet meditation and rest. I engraved the retired pastor's words deep in my heart. 'Am I working as a pastor with the heart of indebtedness to God's love? Or, am I under

a delusion that I am working hard as a pastor because I am busy every day? Wouldn't you agree that, each day when you go to bed, the day will be recorded in terms of how much love you have given that day? Likewise, wouldn't your life recorded in terms of how much love you have given in your life? I titled today's sermon as 'Love, the starting point of real transformation.' At home or at church, a transformation without love is an empty one which can be dangerous.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사랑을 통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디도가 누구입니까? 바울을 통해 주님을 영접한 후, 바울의 동역자가 된 이방인 사역자입니다. 디도는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를 다뤘던 예루살렘 회의에 바울과 함께 참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분열될 때 디도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또 지중해 크레타 섬에 세운 교회의 사역도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디도서 1:5)

In today's scripture, Paul mentions 'transformation through love.' The book of Titus is Paul's pastoral letter to Titus. Who was Titus? He was one of the gentile ministers who became Paul's co-worker after he received the Lord. With Paul, Titus attended the meeting in Jerusalem that dealt with the issue of circumcision of gentiles. Paul sent Titus to the Corinthian church when it was morally corrupted and divided. Paul also entrusted to Titus the ministry work of the church that Paul built on the island of Crete. "The reason I left you in Crete was that you might put in order what was left unfinished and appoint elders in every town, as I directed you." (Titus 1:5)

디도서는 아주 짧은 목회서신이지만, 개척목사 바울의 사랑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크레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그룹들에 주목했습니다. 나이드신 어른들, 젊은이들, 또 자유인이 아닌 종들, 각 그룹에게 맞는 교훈을 줍니다. 디도서의 큰 주제는 '변화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The book of Titus is a very short pastoral letter, but it contains the love of Paul well, a pioneering pastor. Paul focused his attention on various groups in the Cretan church. He gave different teachings to different groups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old, young, or enslaved. **The big theme of the book of Titus is 'transformation and love.'** When we meet the Lord, we naturally begin to yearn for a transformation.

더 이상 세상이 주는 헛된 즐거움에서 벗어나, 거룩한 기쁨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변화 받을 수 있습니까? 디도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변화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변화 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힘과 의지가 없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요. 이처럼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뿐만아니라 주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변화돼야 할지도 모르는 답답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 오셨습니다.

Wanting to get out of the vain pleasure the world gives, one dreams for holy joy. Then how can we be transformed? More accurately, how can we receive transformation? The book of Titus tells us. ‘Transformation is possible only through love.’ Without the love of the Lord, it is absolutely impossible for us to become transformed. You and I are not strong enough to transform ourselves. There is a saying that a resolution rarely lasts more than 3 days. This illustrates how weak human beings are. Moreover, without the Lord’s love, we don’t even have any clue as to what changes we need. The Lord reached out to us who are in such state.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디도서 2:11)

“For the grace of God has appeared that offers salvation to all people.” (Titus 2:11)

우리는 모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We all received the grace of God already. That grace is the love of God that saves us.

은혜가 뭘니까? 값이 없는게 은혜입니다. 거저 받는게 은혜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댓가를 받는 것, 열심히 운동해서 메달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과 노력을 통해 마땅히 받는 것은 월급이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을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입니다. 다른 말로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지요.

What is grace? Grace has no cost. Grace is received free. To receive as an earning for hard work or to receive a medal for a hard race is not grace. What we deserve for our excellence and good effort is called wages or rewards. God sent the Lord to the world to save you and me. That is what grace is. In other words, it is ‘God’s passionate love’ toward us.

2 천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지만, 세상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니다. 상업화되고, 세속화된 요즘 크리스마스, 아무도 주님께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 말구유에 태어 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와서 경배드리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 세 가지 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Two thousand years ago the Lord came but no one in the world even budged to see Him. Even today, with the current trend of commercialized and secularized Christmas, nobody even turns to see the Lord. Our Lord was born in a manger to meet you and me. The Magi from the east came to the Lord, worshiped, and gave three gifts of gold, incense and myrrh. And in fact, the Lord came to this earth to give us three gifts.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 
- (1)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 (2) 깨끗하게 하셔서,
  - (3)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v.14)

- (1) redeem us from all wickedness,
  - (2) purify us, and
  - (3) make us into a people that are his very own, eager to do what is good. (v 14)
- 

적어도 우리 모두가 ‘왜 주님이 오셨나?’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길 원합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참으로 집요하게 쾌쾌 묵은, 먼지나는 옛날 일까지 들먹이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려고해도, 나도 용서가 안되는 일이 있지요. 사탄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 넌 그것 밖에 안돼, 변화같은 소리하고 있네, 뭐 힘들게 바꿀려고 그래, 그냥 생겨 먹은데로 살아, 너 편한대로 살면되지 뭐 변할려고 신경쓰냐.’

At least, I want all of us to be able to answer this question correctly, ‘Why did the Lord come?’ **First, the Lord came to the world to give us ‘the gift of salvation’.** Satan the devil constantly accuses and condemns us. He bothers us with our long-forgotten past. There are things for which I have hard time forgiving even myself, no matter how generous I try to be with myself. Satan attacks that part furiously. ‘See, you are not that great. Don’t talk about changing. Why do you try so hard to change? Just be yourself and live as you are. Why bother to change when you can stay in your comfort zone.’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이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시편 130:7-8)

**“O Israel, put your hope in the LORD, For with the LORD is unfailing love and with him is full redemption. He himself will redeem Israel from all their sins.”** (Psalms 130:7-8)

빌리 그래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인용한 예화입니다. 남부 작은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스피딩 티켓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1 마일에 1 달러씩, 10 달러 판결했지만, 벌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판사는 대신해서 벌금 10 달러를 내주고, 스테이크 하우스로 저녁 초대 합니다. **“That is how God treats repentant sinners!”** -Billy Graham-

Here’s a story Billy Graham told in his sermon. In a small southern city, a person got a speeding ticket. The judge gave him a fine of \$10, at \$1 per mile, but he had no money to pay. The judge paid the \$10 fine on his behalf and invited him to a steak house for dinner. **“That is how God treats repentant sinners!”** -Billy Graham-

둘째, 주님께서는 거룩함을 선물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룩함,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내가 거룩해 질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구원은 누군가 나를 구해 주는 것, 그래서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물론 거룩한 삶을 위해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힘으로

거룩해 질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옆사람을 판단/정죄 하지요. ‘당신은 정말 의지박약이야, 예수 믿은지가 언젠데 어쩔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해!’

**Second, the Lord came to us to give us holiness as a gift.** Many people misunderstand about holiness and sanctification. It is an illusion that we can become holy on our own strength and will power. Salvation is for someone to save us, so we believe that it is grace. But we understand that holiness is something we can do and achieve through our effort. But, that is incorrect. Of course, one needs to decide to commit to holy life. But if we can become holy on our own strength, we can easily judge and condemn the person next to us. ‘Your will power is so weak, how long have you had faith in Jesus and yet haven’t changed a bit!’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 채점표를 들고 서있습니다. 백 점 다 채우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 한 번도 절대 바람 안피고 남편/아내만 바라보고 살았다 3 점, 평생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다 1 점, 흠리스 사역 2 점 ... 주님이 넓은 팔을 펴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절대로 천국 못들어 간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 갈 수 없다. 빨리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라!’

Peter is standing at the heaven’s gate holding a scoring sheet. Only those who get a perfect score of 100 points can enter the heaven. All my life, I never committed adultery, devoted to my husband or wife only - 3 points. All my life, I served church faithfully - 1 point. Homeless ministry - 2 points, ... Our Lord is telling us with His arms wide open. ‘You can never go to heaven if you are judged on your deeds. You cannot go to heaven without God’s grace. Hurry up and come to the house of God!’

**셋째,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선물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늘나라를 이 땅 위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 것, 바로 하늘나라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Third, the Lord has come to us to give us the gift of the Kingdom of heaven. What was the first thing Jesus said when He started the public life?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He proclaimed the Kingdom of heaven to earth. He saved us, invited us to holy life, wanting to give us the Kingdom of heaven.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 내어 깨끗이 씻어 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에스겔 37:23)

“They will no longer defile themselves with their idols and vile images or with any of their offenses, for I will save them from all their sinful backsliding, and I will cleanse them. They wi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their God.” (Ezekiel 37:23)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것, 한량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30)

We don't become citizens of the Kingdom of heaven by doing good deeds. We have to know the order correctly. We do good deeds because we have become citizens of the Kingdom of heaven. It is God's wonderful grace that He saved us and made us holy.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Romans 8:30)

다시 한 번 디도서의 큰 주제로 돌아가 보십시오. 뭐지요? 바로 사랑을 통한 변화입니다. **거룩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와싱턴인교회는 사랑을 통해 변화받는 공동체입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기 전에 먼저 그 분을 사랑으로 품으세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분을 먼저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선물, 거룩함의 선물, 하늘나라의 선물이 되십니다.**

Let's go back to the main subject of Titus one more time. What was it? It is the transformation through love. Do you want to become holy? Then, you must love first! KUMCGW is a community that is being transformed through love. Before you complain and get disappointed about someone not changing, embrace that person with love first. Love that brother or sister with the love of our Lord who gave everything for us on the cross. Our Lord is the gift of salvation, the gift of holiness, and the gift of the Kingdom of heaven.

아직까지 한 번도 이 귀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을 먼저 찾아 가십시오. 주님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이 됩시다. 값없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도 값없이 맘껏 나눠 주십시오. 절대로 은혜를 되돌려 받거나, 칭찬과 존경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거저 받은 '한량없는' 은혜를 되팔아 먹는 '염치없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Let's reach out to someone who has never experienced this precious gift. As the Lord had done for us, let us give ourselves as precious gifts to someone. Let's generously share the boundless grace He gives us freely. Never expect a payback or think we deserve respect and praise. Let us not be 'shameless' people who resell the 'boundless' grace we freely received.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대신 감당하시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로 찾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카드나 마지 못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 가십시오.

The Lord has come. He came to us as light in the darkness, and hope in despair. Our Lord has come. He has come to bear our pain and wound. I hope that you and I can become little Jesus

to someone. Not as a perfunctory card, or a reluctant present, but I want us to reach out someone with our hearts and love.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변화의 길목 앞에 서있습니다. 몇 달 있으면, 웨슬리홀 재건축의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새로 생기는 아름다운 공간과 멋진 시설을 통해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기억되길 원합니까?

Our church is facing an important turning point of transformation. In a few months, we will start digging the ground to rebuild the Wesley Hall. What are we dreaming to achieve through the new and beautiful space, and the fabulous facility? What kind of church do we want us to be remembered as?

모처럼 여유롭게 한 편의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중증 자폐증세를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 오케스트라와 함께 선 평생 처음의 큰 무대, 맑고 또 웅장한 건반의 울림을 들으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영화가 끝나며 자막이 올라갈 때 마음 속에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랑과 감동이라는 평범한 일상의 언어입니다. 영화를 보고 울었지만, ‘주님 사랑 때문에, 빛진 마음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내 신앙생활과 목회가 하나님과 교우들에게 잔잔한 감동이 되고 있는가?’

I was able to relax and watch a movie recently. It was about a pianist with major autism performing with an orchestra on a big stage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Tears came down my face when I watched and listened to the clear and majestic sounds coming from the piano keys. When the credit screen was going up at the end of the movie, I thought of two words. They were ordinary words, “love” and “being touched.” I cried watching the movie, but I asked myself, ‘When was the last time I cried because of the love of our Lord with indebted heart? Is my faith life and my ministry touching the hearts of our congregation and God?’

변화는, 성숙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은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성급하게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충분히 사랑을 느끼고,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의 사랑에 얽매어, 빛진 자의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Transformation and maturing are only possible through love. Love is the starting point of real transformation. Rather than trying to change yourself hastily, it is more important to fully enjoy and share the love. I bless that you have a blessed week experiencing victory with indebted hearts bound by the love of our Lord.

---

English translation volunteers:

Ki Bong Kim, Robin Lee, Kyong S. Oh, Han Park